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연예계는 소송 중

윤상현 10억 피소 등 전속계약 분쟁 시끌



〈윤상현〉

연예계가 또다시 전속계약 분쟁으로 시끄럽다. 연예기획사 엑스타운은 MBC TV '내조의 여왕'으로 스타덤에 오른 윤상현을 상대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10억1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지난달 28일 말했다. 지난 6월1일에는 하하엔터테인먼트가 '소문난 칠공주', '왕과 나'로 인기를 얻은 탤런트 고주원을 상대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2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앞서 개그맨 지상렬, 탤런트 송선미, 가수 유리 등이 최근 전속계약 위반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 또는 패소했다.

▲“물적 지원 아까지 않았다” vs “미지급 출연료 달라”

연예인과 기획사 간 분쟁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대개 돈 문제다. 연예인은 출연료나 광고 모델료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 나가겠다고 주장하고, 기획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적·인적 지원을 해왔으며 전속계약을 해지할 경우는 계약금의 몇 배를 물어내라고 요구한다.

윤상현과 고주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엑스타운은 “2004년 8월 전속계약 체결 후 4년간 윤상현의 연예활동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윤상현의 일방적인 이종계약으로 인해 4년의 세월이 한순간 물거품이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상현의 현 소속사 엠지비엔터테인먼트는 “윤상현과 전 소속사는 출연료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해지 조항에 의거하여 계약 관계가 종료됐다. 이를 2008년 11월 엑스타운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통보했다”며 “배우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하하엔터테인먼트는 “고주원의 재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성실한 매니지먼트를 이행했지만 고주원이 드라마 촬영을 하며 스태프에게 폭언을 하는 등 자주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최근 계약금 지급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지통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전속계약분쟁 결과는 제각각

그렇다면 법정으로 간 전속계약분쟁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지난 6월29일 서울중앙지법은 지상렬이 소속사인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부존 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속사가 정산금과 코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전속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받아들여졌다.

또 지난 6월13일 서울중앙지법은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송선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위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에 5천400만 원의 미지급 TV 드라마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송선미가 낸 반소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반면 지난 4월30일에는 가수 유리가 전속계약 및 브랜드판매 계약 위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리에게 1억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소속사)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렇듯 전속계약 분쟁의 결과는 제각각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 이기든 양측 모두 소송 과정에서 상처와 불명예를 안게 되며, 이긴다 해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는 못한다.

▲“신뢰 깨지면 계약서는 무용지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홍중구 부회장은 “결국은 신뢰 문제다. 계약서의 내용이 어땠든 소속사와 연예인의 인간적인 신뢰 관계가 깨지면 그 순간 계약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홍 부회장은 “연예계에서 전속계약 분쟁의 사유는 다양하고 또 민감한 부분이 다. 단순히 돈 문제를 떠나 사람과 사람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계약서를 떠나 양측이 서로 양보하는 마음이 없으면 같이 일하는 것은 어려워지게 마련”이라며 “법정 분쟁을 들여다보면 연예인이나 기획사 모두 설득력 있는 논리를 대는데 그만큼 양측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MBC 주말드라마 '탐나는도다' 제작발표회에서 임주환, 서우, 황찬빈(왼쪽부터)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만화같은 사극

8일 첫 방영 MBC 주말드라마 '탐나는도다' 관심

아시아와 유럽의 중계무역이 한창인 서기 1640년 제주섬은 청나라와 왜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떠오른다. 조선 최대 상단의 대행수인 서린은 이를 꿰뚫어 보고 국제 상단으로 커가기 위해 제주를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에 넘기려 한다.

그러나 서린 앞에는 상선이 난파되면서 제주로 표류하게 된 외국인 윌리엄과 그를 돕보는 초보 해녀 장버진, 거짓 귀양살이를 하며 왕의 특명을 수행하는 선비 박규가 뜻밖의 걸림돌로 작용하는데-

오는 8일 오후 7시55분 방송을 시작하는 MBC 주말드라마 '탐나는도다'(극본 이재운·신재민·이지향·최이랑, 연출 윤상호·홍중찬)은 정혜나 작가의 동명 만화(서울문화사)를 원작으로 한 트렌디 사극이다.

이 드라마에는 서우(장버진 역), 임주환(박규 역), 황찬빈(본명 피에르 데포르트·윌리엄 역), 이승민(서린 역), 이선호(안역)가 출연한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윤상

호 감독은 “청소년들이 많이 아는 만화가 원작이지만 편성은 온 가족이 다 모여 드라마를 보는 주말 오후 8시여서 어른들에게 어떻게 이 작품을 소개할 것인가가 숙제로 남는다. 그러나 조연으로 출연하는 양희경, 방은희, 김미경씨가 폭넓은 시청자를 모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떠오르는 신인 배우 서우는 “물을 매우 무서워하지만, 해녀 역할을 위해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물면서 잠수를 배웠다. 처음 내역을 쓰는 줄 알았는데 안 쓰더라. 나중에 촬영분을 보니 '처음부터 (물을 무서워하지 말고) 잘 할걸'이란 책임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첫 주연을 맡은 임주환은 “심적 부담이 컸다. 박규가 차갑고 사무적으로 말하는 캐릭터라 주로 전쟁이나 법정 영화를 찾아 감정없이 대사하는 방법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프랑스 국적의 황찬빈은 “배우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기회가 돼서 연기를 하게 됐다. 많은 분이 도와줘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나영 1인2역 도전

로맨틱코미디 영화 출연

영화배우 이나영이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서 1인 2역에 도전한다. 이나영의 소속사 BOP는 이나영이 올 하반기 촬영에 들어가는 영화 '아빠가 여자를 좋아해'(감독 이광재)의 출연을 최근 확정했다고 지난달 27일 말했다.

지난해 오다기리 조와 호흡을 맞춘 김기덕 감독의 '비몽' 이후 약 1년 만의 스크린 복귀다. 이나영은 영화에서 꽃미남의대생에서 성전환을 통해 매력적인 사진작가로 변신하는 '지현'역을 맡는다.

'7급 공무원'으로 400만 관객을 모은 제작사 하리마오픽처스의 천성일 대표가 제작과 각본을 맡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유리〉



〈고주원〉

오리밥집

가장 맛있는 오리밥집

별장 정육 오리밥집 신개념 창업 아이템

숯불갈비집시 + 냉면그릇 = 4,500 원

특별더위 EVENT

1644-1661